

우뇌 손상자의 이야기 산출에서 의미내용과 담화 구조화의 분석

백 경 선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백경선. 우뇌 손상자의 이야기 산출에서 의미내용과 담화 구조화의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2004, 제9권, 제3호, 72-101. 본 연구는 한국인 우뇌손상자(이하 RBD) 8명이 산출한 이야기 담화의 분석이다. RBD의 이야기 산출의 특성을 정상인군 15명과 대조군 8명이 산출한 이야기와 비교해서 명제의 의미 내용과 구조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서 이야기의 산출을 화자의 자발적 산출과 실험자에 의해 유도된 산출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구별했고, 각각의 산출된 이야기는 '배경-복잡화-해결'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실험을 통해 산출된 이야기를 분석한 결과 우선 RBD가 산출한 전체 발화의 양은 정상인군에 비해 감소되는 경향이었지만 산출된 발화의 복잡성은 정상인군과 거의 유사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질적인 분석을 위해서 정상인 화자군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규범적인 이야기 내용을 갖는 핵심명제를 추출했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RBD군에서는 평균적으로 정상인군의 핵심명제의 1/4 정도만 산출되었다. 이야기 단계별 분석에서 볼 때 RBD는 배경 단계에서 정상인보다 낮은 비율로 핵심명제를 산출해 정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화 단계의 발화는 대부분 유도된 산출에서 나타났는데 이 때의 정보성은 정상인군과 유사했다. 한편 RBD 모두가 해결 단계에서는 핵심명제를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명제를 대상으로 이야기 구조화를 볼 때, RBD 대부분이 자발적인 산출 이후 검사자가 개입해 산출을 유도한 산출에서만 복잡화 단계의 발화를 산출했다. 이렇게 RBD는 복잡화 단계를 자발적으로 산출하지 못했고 발화 전체를 볼 때 단계별 구성이 불균형적이었다. RBD군은 유도된 산출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정상인들만큼 구조화된 이야기를 기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화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해서 이야기의 전체 구조에 통합하는 처리능력의 손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RBD의 담화상의 장애가 추론적 능력의 손상으로 최근 연구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담화의 단계를 구조화하는 화용론적 추론 능력이 RBD에게서 손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이야기 산출, 담화분석, 우뇌 손상자, 명제분석, 담화 구조화, 거시 구조, 핵심명제

I. 서 론

인간의 언어 중추가 대뇌 좌반구에 위치하므로 인간의 언어능력에서 우세한 대뇌 반구는 좌반구이고, 대뇌 우반구는 언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신경언어학이나 심리언어학, 신경심리언어학 분야의 연구들을 통해 최근 20 - 30여년 전부터 우반구 역시 언어의 기능

을 하지만 좌반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언어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뇌 손상자들(Right-Brain-Damaged, 이하 RBD로 표기)은 실어증의 징후를 보이지는 않으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몇 가지의 장애적 측면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RBD들의 담화 층위의 언어 산출이 어떠한 장애적 특성을 갖는지를 의미 내용과 이야기 구조화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RBD들의 장애적 언어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담화 차원의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III장에서는 RBD군의 담화 산출을 정상인군, 대조군과 비교하는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II. 우뇌 손상자들의 장애적 담화

1. 대뇌의 좌우 비대칭

인간의 90 % 정도가 오른손잡이이고 그 대부분이 좌반구에서 언어와 말을 통제한다. 나머지 10 %는 왼손잡이거나 양손잡이로서 이들 중 절반은 말과 언어의 통제가 좌반구에서 이루어지고, 또 절반의 경우는 우반구에서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isenson, 1984). 그러나 이러한 편측화의 경향은 해부학 차원에서 이미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개인차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대뇌 양반구의 기능은 비대칭적이다. 좌반구의 경우 운동, 감각, 언어의 생산과 이해 등에서 특수한 기능을 하는 영역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우반구의 경우는 이에 대응하는 영역들이 좌반구와 똑같은 언어 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우반구는 언어의 억양, 음조 등의 운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경학자인 Ross(1981)는 우반구의 여러 손상이 언어의 리듬과 음조의 손상을 이끄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를 실운율증(aprosody)으로서 연구한 바 있다. 또한 Geschwind(1979)가 지적하고 있듯이 우반구는 음악과 복합적인 시각 패턴을 재인하는 능력을 특징적으로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RBD의 언어 능력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야 시작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경우 대개 좌뇌 손상자들처럼 뚜렷한 손상을 나타내지 않고 미묘한 방식으로 장애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 능력의 손상에 있어서 좌반구의 손상은 말이나 언어 장애를 빈번하게 야기하지만 RBD들에게서는 대개 언뜻 보기에 발화가 유창하고 언어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Eisenson, 1984).

Springer & Deutsch(1998)은 좌뇌에 대한 Broca의 관찰보다 우반구 연구가 70년도 더 뒤늦게 시작된 이유를 다음으로 요약한다: 우선, 우반구는 더 큰 손상을 입어도 명백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 좌반구의 경우 특정한 영역에 작은 손상을 입어도 뚜렷하게 언어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반면 우반구는 그렇지 못하다. 우반구의 중요성을 뒤늦게야 인식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반구 손상에 기인한 장애가 분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뇌의 손상이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뚜렷한 장애를 나타내지 않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우반구 역시 특수한 언어 기능을 하고, 대뇌 양반구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상호보완적이라고 간주하는 입장(Eisenson, 1984; Springer & Deutsch, 1998)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두뇌 능력에 대한 국지주의(localization)적 사고이다. 이것은 두뇌 피질의 한 영역에 특정한 인지 기능이 일대일 방식으로 대응한다거나,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명백하게 분리되는 것으로 보는 사고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 능력에 대해서 한쪽 반구가 특정 능력에 특수화된 기능을 전담한다기보다, 특정한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한쪽 반구가 다른 쪽 반구보다 다소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연구할 것이다.

2. 우반구의 의사소통상의 특징

RBD들의 오류는 정상인과 비교해서 뚜렷한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언어의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경우에는 실어증의 오류처럼 보이거나, 또는 정상인이 범할 수도 있는 오류로 간주될 수도 있다. RBD들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RBD들의 언어 오류를 실어증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임을 확인했다(Eisenson, 1962; Weinstein, 1963, 1964; Hannequin, Goulet & Joannette(1987)에서 재인용).

이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두 가지의 연구 결과가 대립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언어의 특수한 측면에 우반구가 기여함을 확인하는 경향이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Eisenson(1962) 연구는 46명의 RBD들과 46명의 정상인 집단간의 과제 수행을 비교하는 것이었다(Hannequin, Goulet & Joannette(1987)에서 재인용). 어휘 테스트와 문장 완성하기 등의 과제에서 대부분 RBD들의 오류율이 정상인 집단보다 더 높았고, 특히 추상적인 단어로 문장을 완성하는 과제에서 RBD들이 많은 실패를 보였다. 이로써 Eisenson은 우반구가 언어의 가장 추상적인 형식화에 특히 기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는 RBD들의 언어 수행이 행동의 영역에 속하는 더 총체적인 장애의 일부라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RBD들에게서 행동의 구술적 측면을 특히 강조해서 이들의 장애적 언어를 설명한 사람은 Weinstein(1963, 1964, Hannequin, Goulet & Joannette(1987)에서 재인용)이라고 볼 수 있다. 베르니케 실어증의 자곤(jargon)이나 RBD들의 무감각증(anosognosie)에 대한 연구들에서 그는 RBD들의 의사소통에서 발견되는 특수한 측면들을 강조한다. 즉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설명을 하는 경향, 자신의 장애를 기술했거나 부인하기 위해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연구한 대상자는 무감각증을 갖는 RBD들의 특수한 한 하위 부류로 제한된 것이었다.

최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Springer & Deutsch(1998)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우반구가 언어적 의사소통에 특수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종합하면서, 언어 의미의 덜 지구(字句)적(literal),

즉 보다 은유적인 처리에 우반구가 우세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언어 의미에 대한 화용론적 추론 과정에 우반구가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반구는 은유와 같이 더 미묘하기는 하지만 언어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또다른 측면을 처리하기 때문에 좌반구에 보완적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우반구는 맥락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에 관여하므로 RBD의 언어 손상은 화용론적 언어 장애 (pragmatic language impairment)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Foldi, 1987; Weylman et al., 1989; Kaplan et al., 1990 ; Martin & McDonald, 2003; Grindrod & Baum, 2003).

또한 RBD의 장애를 담화 장애(discourse impairment)라고 규정하면서 언어 능력의 손상으로 정의하는 연구들(Joanette et al., 1986; Brownell et al., 1986; Hannequin, Goulet & Joanette, 1987; Schneiderman, Murasugi & Saddy, 1992; Beeman, 1993)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RBD들의 담화상의 장애란 넓은 의미에서, 새로 주어진 정보를 이전의 정보에 통합하지 못한 다거나, 구정보와 신정보를 결합하지 못하는 담화상의 손상이라고 볼 수 있다(Molly, Brownell, Gardner, 1990).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많은 연구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가 주로 RBD들의 담화 이해 능력에 관한 것이다(McDonald & Wales, 1986; Brownell et al., 1986; Molloy, Brownell & Gardner, 1990; Hough, 1990; Beeman, Bowden & Gernsbacher, 2000; Champagne, 2001).

Brownell et al.(1986)은 RBD가 담화 이해에서 사실적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추론적 질문에 대답하기에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실험 결과를 보였다. RBD들이 개별적인 의미는 정상인들처럼 이해 하지만 이것이 단편적인 이해로 그쳐서 전체 담화의 일관성있는 해석을 내리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Hough(1990)의 보고에 따르면 이야기 이해에 대한 연구에서 RBD는 언어 구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이해를 위해 중심적인 주제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에 손상이 있다. 한편 Beeman, Bowden & Gernsbacher(2000)의 최근 연구에서는 담화 이해에서 양반구 모두 추론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반구와 좌반구의 의미 코드화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달라서 담화의 완전한 이해를 위한 추론에서 결국 양반구간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담화 산출에 대한 심리언어학 연구는 이해 능력에 대한 연구만큼 많지 않다. 80년대에 Ulatowska와 동료 연구자들, Gleason 등이 실어증 담화 산출을 연구했는데 실어증 담화의 정보량과 복잡성 모두 정상인들보다 축소되었고 이야기 담화는 덜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Joanette et al., 1986). 그리고 Schneiderman, Murasugi & Saddy(1992)는 RBD가 과제 수행을 위해 주제문에 포함된 거시 구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 배열 과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RBD는 주제문의 거시 구조적 적합성을 재인하지 못했고, 이는 RBD가 담화 이해와 산출에서 거시 구조 처리의 손상을 보임을 확인했다.

RBD의 담화 산출에 대한 연구의 한 예를 들면 Joanette et al.(1986)은 일련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과제를 통해서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RBD들이 산출한 담화를 정보 내용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RBD들의 이야기 정보내용이 정상인에 비해 결핍되고, 특히 이야기를 일관성있는 총체로 통합하는 능력이 RBD에게서 손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

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과제를 통해서 RBD의 담화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들이 산출한 담화상의 특징에 비언어적 정보가 관여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자들 역시 결론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이들이 결론 내린 RBD의 언어 특징이 순전히 언어적 손상인지 아니면 비우세반구인 우뇌의 특수한 공헌의 반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3. 이야기 담화의 의미내용과 구조

담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차적으로는 문장을 넘어서는 언어 단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단어나 한 문장이 담화를 구성할 수도 있으므로 담화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를 구성하는 언어 단위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적절한 담화상의 규칙을 따르면서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담화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담화를 담화로서 특질짓는 고유한 담화 문법의 틀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적 언어에 대한 담화 층위의 연구는 정상적인 담화의 수행에서 드러나지 않는 심층적인 담화 메카니즘을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실어증 환자의 경우 단어나 문장의 차원에서 언어 수행에 장애를 보여도 의사소통 기능을 위한 담화의 산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또 RBD의 경우에서도 앞서 소개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언어 기능의 측면(음운, 통사 등)에는 큰 문제가 없이 언어가 유창한 것으로 보이나 담화 처리의 여러 측면에서 비정상적 기능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담화에 대해서 어휘, 통사 등의 엄밀하게 언어적 차원과 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차원, 다시 말해 담화 처리를 위한 인지적 차원 등이 분리가 된다는 사고로 우리를 이끈다. 또한 담화 수행에서의 언어 차원과 담화 처리를 위한 인지적 기능은 분리가 되면서도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Myers(1997)의 경우 담화를 언어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RBD들에게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능력의 영역을 그는 언어 외적인(extralinguistic) 것과 비언어적인(nonlinguistic) 것으로 구분한다. 그가 구별하는 언어 외적 영역이란 대개 서술적 담화 손상의 영역을 포함하고, 비언어적 영역은 좌측 무시 증후군(left-neglect), 무감각증, 주의력 손상 등과 같이 언어 이외의 인지 능력이 손상되는 영역이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서술적 담화는 맥락상의 의사소통이고, 맥락이란 단어, 문장 뿐만 아니라 화자의 목소리, 음조, 얼굴 표정과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의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단서들로 구성된다. 또 담화란 서술적인 정보의 구조화와 추론의 발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담화를 구성하는 문장은 독립적인 단위가 아니라 중심적인 사고가 강조되는 더 큰 전체의 한 부분인 것이다. RBD의 언어외적 손상이라고 Myers(1997)가 특징짓는 영역은 거시 구조의 손상, 의사소통 사건에 대한 민감성의 감소, 그리고 운율의 생산과 이해의 손상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RBD들을 통해서 볼 때 언어는 의사소통의 한 측면일 뿐임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서 언어적 손상은 RBD의 의사소통 손상의 전형적인 징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 Myers(1997)의 생각이다. 즉, 그는 서술적인 담화의 영역을 언어외적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담화를 문장보다 상위인 언어단위로서 보지 않고 사고의 단위로서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향의 연구로서 Faust et al.(1993)도 우반구를 비언어적 반구로서 구별하면서 우뇌가 언어적 프로세싱에서 역할이 최소임을 보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의 관점에서 구술 담화는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느냐에 따라 대화와 서술 또는 이야기(narrative) 담화로 나눌 수 있다. 대화란 화자와 청자간의 언어 교환을 통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담화이고, 이야기는 화자 혼자 담화를 주도해가는 형태의 담화이다.

Ulatowska et al.(1990)은 신경언어학의 차원에서 다른 유형의 담화와 이야기 담화를 구별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결국은 손상 패턴의 차이로 이끌 수 있음을 보인다. 그가 제시하는 이야기 담화의 특징은 첫째, 의사소통 기능의 면에서 볼 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 내용의 측면에서 이야기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 셋째, 이야기 담화는 일관성의 측면에서 문장으로부터 출발해서 텍스트의 작은 단위들뿐만 아니라 텍스트 전체까지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구조화된다. 그래서 이야기 담화는 관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의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이야기 담화를 하나의 이야기로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야기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일정한 구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의미적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담화의 응결성, 또는 결속성의 담화적 장치들이 있기에 이야기 담화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담화의 의미가 명제의 형태로 표상되어 사고되는 것으로 보는 Van Dijk(1977)의 경우 담화에서 추론되는 의미구조를 일관성의 측면에서 거시 구조와 미시구조 등으로 구분한다. 거시 구조는 담화 전체에서 의미 내용을 구조화하는 틀이고 미시구조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명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Van Dijk(1977)이 제기하는 것처럼 거시 구조란 실제 문장들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기 보다는 이들보다 상위의 수준에 위치하면서 의미 내용을 구성하는 명제들에 의해 표상되는 구조라고 할 것이다. 이는 핵심어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며 자연어의 담화를 특징짓는 일관성 있는 전체라고 Van Dijk et al.(1983)은 말하고 있다.

Van Dijk(1977)에 따르면 이러한 거시 구조는 이야기 담화가 전체적인 서술구조에서 갖는 기능에 따라 '배경(setting)-복잡화(complication)-해결(resolution)'의 단계라는 이론적 범주들로 구성된다. 배경은 사건과 행위들의 배경이 되는 시간, 장소, 인물, 이야기의 상황을 제시해서 이야기에 인물을 도입하는 범주로서 이는 이후에 펼쳐질 사건과 행위를 위한 조건이 된다. 복잡화는 전개되는 여러 사건의 기술로 해석되는 명제들의 연속이다. 그리고 해결은 최소한 하나의 행위의 기술을 포함해야 하는데 실제 담화에서는 상태의 기술로 나타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의 범주가 담화의 전반적인 구조를 결정한다는 구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담화는 이야기의 거시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응용해서 Glosser(1993)는 서술적 담화 과정에 관여하는 언어 기능을 두 가지로 구

별한다. 첫째, 미시언어적(microlinguistic) 기능이란 단어와 문장의 음운, 통사적 처리를 위한 언어에 특수한 절차이다. 이는 맥락에 독립적으로 언어단위 처리를 위해 특수화된 절차이다. 그리고 거시언어적(macrolinguistic) 기능은 담화의 개념적, 화용론적 구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언어와 비언어적 지식을 통합하는 인지적 절차이다. 거시언어적 능력을 반영하는 일관성이 다시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총체적 일관성은 담화 전체의 거시 구조의 심층에 깔린 주제의 단일성을 반영하고, 국부적 일관성이란 담화에서 전후의 개별 문장들이 개념적 연결 관계를 유지하는 일관성을 말한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앞서 살펴 본 우뇌의 능력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한국어 담화에 적용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실험을 위한 우리의 가설은, 한국인 RBD의 이야기 담화 산출에서 정보의 의미내용이 정상인군에 비해 결핍되고, 이야기를 이야기로서 특수화하는 이야기 구조화 능력에 손상이 있고, 따라서 정보의 한 부분을 이야기 구조 속에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가설이 실험적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이를 우반구의 특수한 언어적 능력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본고에서는 RBD들의 담화상의 특징을 언어적 손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따르고자 하므로 언어 이외의 다른 지각 능력의 반영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그림 과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홍부와 놀부’ 이야기를 과제로 해서 화자의 자발적인 담화 산출을 유도해 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를 과제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성인 화자라면 이야기 단서가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검사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산출이 가능하다. 둘째, 그림 과제처럼 다른 감각을 동원한 단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산출된 이야기 담화를 언어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모두 오른손잡이이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RBD 8명, 이들과 연령대와 학력이 유사한 성인 정상인으로 구성된 대조군 8명, 그리고 15명으로 구성된 20대의 정상인군이다.

RBD 대상자는 오른손잡이로서, 대뇌 우반구 편측의 피질 손상자로 제한되고 이야기의 산출이 가능한 환자로 선별했다. 이들 모두 정신 병력이 없고 청각, 시각의 결함이 없는 화자들이다. 발병후 일수는 4일에서 9개월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이들의 연령대는 42 - 72세로 평균 55.25세이고, 평균 교육연수는 12.75년, 평균 과제 수행시간은 118.75초이다.

RBD 환자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 1> RBD의 정보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 년수	병소	발병후 일수	녹음시간 (초)
RBD-1	남	57	서울	16	Rt. Cerebral Contusion (Frontal Lobe)	14일	146
RBD-2	남	50	경기도	16	Rt. MCA Infarction	4일	85
RBD-3	남	55	경기도	12	Rt. MCA Infarction	5일	143
RBD-4	남	51	서울	9	Rt. MCA Infarction	5개월	60
RBD-5	남	48	서울	12	Rt. Cerebral Infarction	3개월	90
RBD-6	남	62	서울	16	Rt. Cerebral Infarction	9개월	235
RBD-7	남	72	서울	12	Rt. Brain Damaged	2개월	130
RBD-8	여	47	서울	9	Rt. Brain Damaged	4개월	61
평균		55.25		12.75			118.75

대조군 8명(남 6명, 여 2명)의 연령대는 42 - 71세이고 평균 연령이 51.25세, 평균 교육연수는 13.25년, 평균 과제 수행시간이 132.28초였다. 역시 모두 오른손잡이고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정상인 화자들이다. 그리고 정상인군은 서울 지역의 20 - 27세의 대학생 15명(남 7명, 여 8명)으로 구성되며 오른손잡이고 평균 교육연수 12년의 서울 거주자로서 표준어를 구사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이다.

2. 연구 절차

정상인군과 대조군의 담화 수집은 2003년 6월과 2003년 12월, 2004년 8-9월에 이루어졌다. 검사자와 일대일로 면담하는 상황에서 ‘홍부와 놀부’ 이야기를 하도록 부탁했고 검사자는 이를 녹음했다. 녹음에는 LG AHA-R944 모델의 녹음기와 SIMS SVR-P3495 모델의 보이스펜을 사용했다. 녹음할 때에는 “홍부와 놀부 얘기 아시죠?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냥 편하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라고만 하고, 중간에 검사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중간 중간에 ‘네, 네’라는 반응만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발화를 산출하도록 했다. 녹음된 이야기는 차후에 검사자에 의해 전사되었고 이 자료에 대해 명제 분석을 실행하였다.

RBD군은 2003년 5 - 6월, 2004년 8 - 9월에 걸쳐서 서울의 A, B, C, D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에 입원한, 또는 외래 환자들로서 병동에서 이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녹음했다. 녹음에는 정상인군에게서와 동일한 녹음기를 사용하여 차후에 검사자가 이를 전사하고 명제 분석을 했다. 처음에는 정상인군과 녹음할 때와 마찬가지로 “홍부와 놀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모르

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부탁을 하고, 검사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발화를 산출하도록 기다렸다. 그리고 난 후 RBD가 발화를 중단하면 검사자는 “조금 더 얘기해주시겠어요?”라고 하며 더 많은 발화의 산출을 유도했다. 발화 산출은 한번만 유도하고 이때 화자가 얘기하다가 다시 중단하면 “네, 거기까지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검사자는 녹음을 마쳤다.

3. 분석의 기준

이제 산출된 이야기 담화를 의미명제로 분석해 보겠다. 이러한 의미명제들로의 미시명제 분석은 언어를 심리적인 표상으로 간주하는 Van Dijk(1977), Van Dijk & Kintsch(1983), Joannette et al.(1986), Le Ny(1989)와 Kintsch(1994)의 방법을 따른 것이다. Le Ny(1989)에 따르면 한 문장의 처리에 보편적인 기저의 의미 구조는 ‘동작주(agent)-행위-수동자(patient)’를 연결하는 명제의 표상으로서, 즉 명제(Proposition) ‘P(술어, 논항1, 논항2)’의 구조로 표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가 정원에서 고양이를 쫓아간다’라는 문장의 의미 표상을 위해서는 P1(쫓다, 개, 고양이)과 P2(-안에서, P1, 정원)라는 명제로 기술할 수 있다.

우선 담화의 양적인 측면을 살펴본 후 질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미시구조 측면에서 담화가 어느 정도의 정보성을 갖고, 거시 구조의 측면에서는 이야기 구조화의 양상을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가. 명제 분석의 기준

하나 혹은 둘의 논항과 하나의 서술어를 갖는 명제 형태를 단순명제라는 기본 형태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놀부가 파산하다’인 경우는 ‘P (파산하다, 놀부)’로, 그리고 ‘홍부가 제비를 치료하다’는 ‘P (치료하다, 홍부, 제비)’라는 명제로 분석한다. 여기에서 P란 하나의 명제(proposition)를 뜻하며 명제분석에서는 P1, P2... 등으로 표기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명제들로의 분석에서 명제는 하나의 서술어를 갖는 경우 단순명제로, 그리고 하나의 다른 단순명제를 논항 중 하나로 갖는 명제를 복합명제로 간주하게 된다. 그리고 서술어는 부정, 의문의 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서술어의 원형으로 간주한다.

본고에서는 의미명제 분석의 방법을 한국어 담화 산출에 적용함에 있어 이야기의 전개에 관여적인 발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즉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대해 갖는 태도, 즉 양태는 정보를 갖는 의미내용의 분석에서 배제한다. 예를 들어서 “홍부와 놀부가, 그니까 어렸을 때 동화책 읽기로는”, “어느날 놀부가, 무슨 일인지는 잘 기억 못하는데, 홍부를...”, “... 그런 교훈이 있는 동화지요”, “홍부가 장난 아니게 갑자기...”, “그렇게 밖에 모르는데”, “그거 밖에 아는 게 없네” 등은 서술자의 개입이므로 모두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한 반복어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서 “고쳐주자 해서는 고쳐서, 말하고 고쳐서, 불

쌍해서 고쳐서 날려 보내 줬더니만...”의 경우 ‘P1(고치다, 흥부, 제비 다리), P2(보내다, 흥부, 제비), P3(-서, P1, P2)’라는 세 명제로 분석했다. ‘아주, 매우’와 같이 정도를 강조하는 부사어는 이야기 내용의 전개에 관여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나치게 세분하는 분석을 피하고자 했다. 그래서 ‘자동사 + 보어’는 하나의 술어로 간주해서 예를 들어 ‘부자가 되다’를 하나의 술어로 보았다.

‘어느날, 일부러’와 같은 부사어나 부사구는 대개 복합명제로 처리해서 ‘-에게’는 ‘Pn (-에게, Pn-1)’의 식으로 보았다. 그리고 술어가 복합적인 형태인 경우 이야기 산출에서 정보성을 갖는 의미 내용만을 분석했는데 ‘물어다 주다’의 경우 ‘물다’로, ‘심어가지고 (박을) 탔는데요’의 경우 술어를 ‘심다’와 ‘타다’로 보았다.

나. 핵심명제 판별의 기준

핵심명제란 이야기 내용의 정보에 필수적인 의미 명제들이다. Joannette et al.(1986)이 말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불변하는 정보의 부분을 이 분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핵심명제는 그 이야기에 대해 기대되는 규범적인 정보내용으로서 출현율이 낮은 명제들은 배제하게 된다.

핵심명제는 의미정보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능어, P) 형태의 복합명제는 핵심명제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판별했다. 그리고 정상인군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빈도를 갖고 공통적으로 출현하고 ‘흥부와 놀부’ 이야기의 규범적인 내용을 구성한다고 판단되는 명제를 선별했다. 그리고 명제의 의미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동일한 의미 내용인데 언어 표현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동일한 의미의 논항으로 간주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아래의 명제 P의 번호에 해당하는 핵심명제는 <표 - 5>를 참조):

P3 에서 ‘착한 = 욕심없는’	P23 에서 ‘물어오다 = 물다, 가져오다’
P4 에서 ‘나쁜 = 욕심 많은, 못된’	P26 에서 ‘심다 = 키우다’
P6 에서 ‘가난한 = 굶다, 부양능력 없다, 매우 가난한’	P28 에서 ‘자르다 = 타다’
P12 에서 ‘쫓아내다 = 모르는 척하다, 돕지 않다, 구박하다’	P31 에서 ‘(흥부가)부자가 되다 = 구제받다’
P17 에서 ‘다친 = 부러진’	P34 에서 ‘심술부리다 = 욕심부리다’
P19 에서 ‘고치다 = 구하다, 돕다’	P46 에서 ‘도깨비 = 안 좋은 것들, 오물’

다. 우뇌 손상자의 담화 산출 단계

담화 산출의 연구에서는 순전히 자발적으로 산출되는 발화와 검사자가 개입하여 산출된 발화의 인지적 처리과정이 동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실험

에서는 RBD의 담화 산출을 두 단계로 나누었다. 우선 검사자는 “홍부와 놀부 얘기 아시죠?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주시면 돼요.”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부탁한 후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환자 자발적으로 산출하게끔 한다. 이를 “자발적 산출”의 단계로 볼 것이다.

대개 환자들의 경우 이 자발적 산출의 단계에서 이야기를 길게 끌어나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자발적 산출이 끝난 후에는 검사자가 이야기 산출을 한번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유도된 산출’ 단계라고 보겠는데 여기서 검사자는 “홍부와 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라는 질문으로 보다 많은 발화의 산출을 유도한다. 그리고 결과를 분석할 때에 이 두 단계의 발화 산출을 구별해서 따로 분석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자발적 산출과 유도된 산출을 구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담화 산출에서 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변인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므로 외부 단서에 의한, 즉 유도된 산출과 외부 단서가 없는, 즉 자발적 산출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 구별은 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RBD의 언어 장애가 실어증처럼 뚜렷한 장애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담화 산출의 경우에서도 RBD가 자발적 산출에서는 못하다가 유도된 산출에서는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는 행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합한 전체 산출의 결과와, 산출의 종류를 구별한 각각의 결과는 질적인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본다. RBD의 언어 행태가 정상인군에 비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진 만큼 이러한 산출 단계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한가지 이유를 추가하자면 자발적 산출만으로는 수집되는 발화량이 적어서 이것만으로는 이야기 구조화를 분석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참고로, RBD-1 화자의 ‘홍부와 놀부’이야기의 의미내용 분석 결과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 살펴 볼 연구 결과에서 정상인군, 대조군, RBD군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RBD군의 결과는 자발적 산출의 결과와 유도된 산출의 결과, 그리고 이들을 모두 합한 RBD 전체 산출의 결과로 구별하게 된다. 이 때 엄밀하게 보면 정상인군, 대조군과 일차적으로 비교하는 대상은 RBD의 자발적 산출의 결과로 봐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검사자의 동일한 지시하에서, 즉 동일한 실험의 조건에서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화자들의 담화가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야기 담화의 거시 구조가 ‘배경-복잡화-해결’의 단계로 구성된다고 볼 때 이야기를 단계로 구분하면서 화자의 이야기 산출이 어느 정도로 이 거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홍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이야기의 전개를 위한 배경 단계는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그들이 처한 배경 상황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옛날에 홍부와 놀부가 살았는데 홍부는 가난하지만 착하고 놀부는 심술궂은 성격이다. 홍부가 도움을 청해도 놀부는 돕지 않고 부모님 재산도 혼자 다 차지했다’까지의 내용을 ‘홍부와 놀부’ 이야기의 배경 단계로 보았다. 그리고 홍부를 제비가 구해주고 그 보은으로 부자가 되고 놀부도 이를 따라하다가 결국 망한다는 얘기까지를 ‘복잡화’ 단계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놀부가 망한 이후 홍부와 다시 어떻게 되었는지를 언급하는 ‘나중에 홍부는 놀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다’를 이야기를 마무리 하는 ‘해결’ 단계로 간주했다.

IV. 연구 결과

1. 의미명제 분석

가. 의미명제와 복합명제

<표 - 2>는 정상인 화자군과 대조군, 그리고 RBD군이 산출한 발화의 전체 의미명제의 평균 수치이다.

<표 - 2> 산출된 전체 의미명제의 수

	전체 의미명제의 수 평균
정상인	49.46
대조군	46.88
RBD군 발화전체	30.25
RBD 자발적 발화	16.63
RBD 유도된 발화	13.63

우선 전반적으로 RBD의 전체 발화 수가 정상인들보다 감소되고 자발적 산출과 유도된 산출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표에 제시된 정상인 화자 그룹의 평균치만으로 모든 RBD의 발화 수가 정상인보다 축소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의 표에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정상인 화자 N4의 경우 전체 명제 수가 21이고, N12의 경우는 20인 것처럼 정상인의 경우도 발화 수가 RBD의 평균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으므로 전체 발화량만으로는 RBD의 산출이 비정상이라고 단순히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래의 <표 - 3>은 이들이 산출한 전체 의미명제 중에서 복합명제의 수와 그 비율이다. 이를 통해 화자들이 산출한 발화가 어느 정도의 복잡성을 갖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표 - 3> 화자들이 산출한 전체 의미명제에 대한 복합 명제의 비율

	복합 명제의 평균수	복합명제의 비율(%)
정상인	23.66	47.95
대조군	23.25	49.59
RBD군 발화전체	13.88	45.88
RBD 자발적 발화	7.88	47.38
RBD 유도된 발화	6.00	44.02

RBD의 발화 전체에서 복합명제의 평균수는 정상인군, 대조군에 비해 절반정도이고, 자발적 산출과 유도된 산출에서는 더욱 감소한다. 그러나 전체 의미명제에 대한 비율은 정상인군, 대조군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RBD의 전체 발화수가 축소되긴 하지만 발화의 복잡성 측면에서 볼 때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RBD의 전체 발화수와 복합명제의 수라는 양적인 측면만으로는 정상인군과 비교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제 살펴보게 될 이야기 구조상의 질적인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이야기의 구조화

화자들이 산출한 이야기가 이야기 담화로서 어떻게 구조화되어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야기의 단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았다. <표 - 4>는 전체 의미 명제를 '배경-복잡화-해결'이라는 이야기의 세 단계로 구별해서 그 구성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표 - 4> 전체 의미명제에서 이야기의 단계별 비율

	배경 단계(%)	복잡화 단계(%)	해결 단계(%)
정상인군	33.2	60.16	6.61
대조군	28.13	60.73	11.13
RBD군 발화전체	40.84	54.33	4.82
RBD 자발적 발화	77.71	16.40	5.89
RBD 유도된 발화	2.68	81.88	2.94

위의 표에서 전체 발화의 이야기 단계별 구성에서 정상인군의 평균을 보면 해결 단계를 1로 볼 때 대략 '5.02 : 9.10 : 1'의 비율로 이야기의 세 단계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복잡화 단계의 비중이 제일 크고 해결 단계의 비율이 제일 적음을 알 수 있다. 반면, RBD의 전체 산출에서는 정상인군, 대조군보다 복잡화 단계의 비중이 54.33 %로 감소되고 오히려 배경 단계의 비중이 40.84 %로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 RBD가 자발적 산출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복잡화 단계로 스스로 이행해 가지 못하고 배경 단계의 기술에 머물러 있었음을 반영한다.

위의 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RBD의 경우 산출된 이야기 세 단계의 구성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자발적 산출의 단계에서는 배경 단계가, 유도된 산출에서는 복잡화 단계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RBD에게서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 자발적 산출 단계에서는 배경 단계의 발화를 산출하고 중단하거나 곧바로 해결 단계로 이동하고, 유도된 산출 단계에서는 거의 다 복잡화 단계의 발화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검사자가 유도된 산출에서 "홍부와 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라고 유도하기 때문에 복잡화 단계가 산출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RBD가 이야기의 상세한

기술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유도되면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이야기의 상세한 정보를 구체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목해야할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다음에는 핵심명제의 추출을 통해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을 계속해보겠다.

2. 핵심명제의 분석

가. RBD의 이야기 핵심명제 추출

정상인 집단에서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31개의 의미 명제들(출현 빈도 46.66 % 이상, 즉 15명 중에 7명 이상의 화자에게서 발화된 명제를 채택)을 추출했다. 이를 정상인들의 ‘홍부와 놀부’의 규범적인 이야기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보아 핵심명제로 간주했다. 그리고 이 핵심명제들이 RBD군의 발화 산출에서 얼마나 출현하는지를 살펴보면 RBD의 발화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 표에서 ‘1’로 표시된 부분은 RBD가 산출한 발화가 정상인의 핵심명제와 같거나 거의 동일해서 유사한 의미 명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 핵심명제이다.

본 실험에서 추출된 31개의 핵심명제와 RBD가 산출한 핵심명제는 <표 - 5>와 같다.

<표 - 5> RBD가 산출한 핵심명제

핵심명제	정상군 출현율	대조군 출현율	R1	R2	R3	R4	R5	R6	R7	R8	비고
P1 (살다, 홍부와 놀부)	93.3	37.5	1								
P19 (고치다, 홍부, 제비)	93.3	87.5	1	1			1				
P23 (몰어오다, 제비, 박씨)	93.3	62.5	1	1	1	1	1	1			
P6 (가난한, 홍부)	86.6	75	1					1			
P26 (심다, 홍부, 박씨)	86.6	37.5		1				1			
P29 (나오다, 보물)	86.6	62.5	1	1				1		1	
P12 (쫓아내다, 놀부, 홍부)	80	50	1	1	1						
P37 (부러뜨리다, 놀부, 제비다리)	80	75			1						*
P46 (나오다, 도깨비)	80	75							1	1	
P3 (착한, 홍부)	73.3	87.5	1	1	1	1	1		1	1	
P4 (나쁜, 놀부)	73.3	87.5	1	1			1		1	1	
P28 (자르다, 홍부, 박)	73.3	75		1				1			
P31 (부자가 되다, 홍부)	73.3	100	1		1	1				1	
P2 (옛날에, P1)	66.6	12.5									

(<표 - 5> 계속)

핵심명제	정상군 출현율	대조군 출현율	R1	R2	R3	R4	R5	R6	R7	R8	비고
P16 (어느날, P(오다, 제비))	66.6	12.5						1			
P52 (행복하게 살다, 모두 다)	66.6	50									*
P33 (알다, 놀부, P31)	60	50			1			1			
P63 (일부러, P37)	60	37.5									*
P38 (고치다, 놀부, 제비)	53.3	12.5	1								
P42 (심다, 놀부, 박씨)	53.3	25						1	1		
P44 (자르다, 놀부, 박)	53.3	25							1		*
P60 (자라다, 박)	53.3	50						1			*
P67 (돌아가시다, 부모님)	53.3	0			1						
P70 (독식하다, 놀부, 재산)	53.3	0			1				1		
P17 (다친, 제비)	46.6	50		1			1				
P34 (심술부리다, 놀부)	46.6	75									*
P48 (박살내다, 도깨비, 놀부 집)	46.6	37.5						1			*
P49 (파산하다, 놀부)	46.6	37.5				1	1				
P54 (형, 놀부)	46.6	50	1	1			1	1	1		
P55 (동생, 흥부)	46.6	50		1		1		1			
P71 (갸다, 흥부, 많은 자식들)	46.6	25		1							*
평균 출현 수	65.76	48.79	11	12	8	5	7	12	7	5	8.38

이와 같이 정상인 집단에서 추출된 핵심명제 31개 중에서 RBD군은 평균 8.38개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 옆의 비고란에 *로 표시한 것은 RBD군에서 거의 산출되지 않았지만 대조군에게서는 적절하게 산출된 8개의 핵심명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 RBD가 사용하지 않은 핵심명제’에서 살펴보겠다.

나. 핵심명제의 사용

<표 - 6>은 발화 전체와 각 단계별로 화자가 산출한 핵심명제 수의 평균이다. RBD군의 전체 발화에서 사용된 핵심명제의 평균 수는 정상인군의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발적 발화와 유도된 발화를 구별해볼 때 이 수치는 훨씬 더 적어진다. 자발적 산출에서는 배경 단계

가, 유도된 산출에서는 복잡화 단계의 핵심명제가 많이 사용되고 해결 단계의 핵심명제의 산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6> 핵심명제의 평균 출현 수

	전체발화	배경	복잡화	해결
분석의 기준(개)	31	11	19	1
정상인군	20.47	7.20	12.53	1
대조군	14.88	4.75	10.00	1
RBD군 발화전체	8.38	3.75	4.50	0
RBD 자발적 발화	3.75	3.25	0.5	0
RBD 유도된 발화	4.75	0.25	4.5	0

다. RBD가 사용하지 않은 핵심명제

<표 - 7>은 <표 - 5>에서 *로 표시된 8개의 핵심명제에 대한 내용이다. 이들은 모든 RBD군에서 0 - 1회의 출현수를 보여 RBD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조군에서는 적절한 비율로 출현한 핵심명제들이다. RBD군과 대조군에서 공통적으로 0 - 1회의 출현수를 보인 핵심명제는 제외된 것이다.

<표 - 7> RBD가 사용하지 않은 핵심명제

핵심명제	정상인군 출현율(%)	대조군 출현율(%)	RBD군 출현율(%)	특징
P71 (갯다, 흥부, 많은 자식들)	46.6	25	12.5	흥부 이야기
P37 (부러뜨리다, 놀부, 체비다리)	80	75	12.5	놀부 이야기
P63 (일부러, P37)	60	37.5	0	놀부 이야기
P44 (자르다, 놀부, 박)	53.3	25	12.5	놀부 이야기
P60(자라다, 박)	53.3	50	12.5	흥부, 놀부 공통
P34 (심술부리다, 놀부)	46.6	75	0	놀부 이야기
P48 (박살내다, 도깨비, 놀부 집)	46.6	37.5	12.5	놀부 이야기
P52 (행복하게 살다, 흥부와 놀부)	66.6	50	0	해결 단계
평균	56.63	46.88	7.81	

위의 8개의 핵심명제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P71은 배경 단계, P52는 해결 단계의 핵심명제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복잡화 단계의 핵심명제에 속한다는 것이다. 특히 P37, P63, P44, P34, P48은 모두 복잡화 단계에서 놀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홍부와 놀부’ 이야기는 복잡화 단계에서 우선 홍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놀부의 이야기가 뒤따르면서 두 형제의 성격과 삶이 대조적으로 전개되다가 해결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RBD들이, 일단 유도된 산출에 의해 복잡화 단계의 발화를 하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전개에 필요한 놀부의 이야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스스로 이야기의 세부적인 상세한 기술을 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3. RBD 담화의 정보성의 분석

이야기 담화의 각 단계별로, 산출한 담화 전체 수에 대한 핵심명제의 수와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각 화자들이 산출한 발화의 질적인 차원에서 발화가 어느 정도로 정보성을 갖는지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이야기 전체에서 전체 발화에 대한 핵심명제의 비율

<표 - 8> 산출한 전체 명제에 대한 핵심 명제의 비율

	전체 중 핵심명제의 비율(%)
정상인군	38.92
대조군	34.46
RBD군 발화전체	30.99
RBD 자발적 발화	24.48
RBD 유도된 발화	37.73

RBD의 전체 발화의 산출에서 핵심명제의 비율이 정상인군과 대조군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경향이 있고, RBD의 자발적 발화만을 대상으로 보면 비율이 더 낮아져서 정보성이 떨어진다는 차이를 보인다 (<표 - 8> 참조). 그리고 유도된 산출에서는 거의 정상인군과 동일한 핵심명제의 비율을 갖는다. 그러나 위의 비율은 이야기의 단계를 구별한 것이 아니고 전체 발화에 대한 것이다. 앞의 <표 - 4>, <표 - 6>에서 보았듯이 자발적 산출과 유도된 산출에서 단계별 구성이 매우 불균형적임을 생각해 보면, RBD의 발화가 정상인군의 발화보다 질적인 면에서 어떠한 정보성을 갖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발화전체에 대한 핵심명제의 비율도 이야기의 구조화 단계별로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배경 단계에서 전체 명제에 대한 핵심명제의 비율

<표 - 9> 배경 단계에서 핵심명제의 비율

	배경 단계 중 핵심명제의 비율(%)
정상인군	43.36
대조군	40.55
RBD군 발화전체	32.29
RBD 자발적 발화	26.24
RBD 유도된 발화	8.33

RBD군에게서 배경 단계의 발화는 주로 자발적 산출에서만 발화되었다(<표 - 9> 참조). RBD군의 핵심명제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정상인군에 비해 낮아 정보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RBD의 유도된 발화에서는 RBD-5 화자 한명만이 배경 단계를 산출했으므로 의미명제의 수도 적고 위의 표와 같이 정보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복잡화 단계에서 전체명제에 대한 핵심명제의 수와 비율

<표 - 10> 복잡화 단계에서 핵심명제의 비율

	복잡화 단계 중 핵심명제의 비율(%)
정상인군	39.03
대조군	38.13
RBD군 발화전체	37.56
RBD 자발적 발화	3.57
RBD 유도된 발화	38.05

복잡화 단계의 RBD의 발화는 자발적 산출 단계에서는 거의 없었고(RBD-7만이 자발적 산출에서 복잡화 단계의 발화를 함) 유도된 발화의 단계에서 대부분 산출되었다(<표 - 10> 참조). 유도된 발화에서 RBD의 핵심명제의 비율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정상인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으로 RBD가 복잡화 단계의 이야기를 산출하는 것은 드물어서 스스로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기술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검사자에 의해서 발화가 유도되어 단서가 주어지면 거의 정상인군과 가까운 정보성을 갖는 발화를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해결 단계에서 전체 명제에 대한 핵심명제의 수와 비율

<표 - 11> 해결 단계에서 핵심명제의 비율

	해결 단계 중 핵심명제의 비율(%)
정상인군	17.88
대조군	10.92
RBD군 발화전체	0
RBD 자발적 발화	0
RBD 유도된 발화	0

본고에서 채택한 핵심명제의 기준에 따르면 RBD 모두에게서 해결 단계의 핵심 명제는 산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 11> 참조). 그런데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해결 단계의 핵심명제는 정상인군에서도(N2, N4, N5, N6, N15의 경우) 산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앞의 <표 - 4>에서 전체 발화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RBD의 해결 단계에서의 발화 수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표 - 11>에서 정보성이 높은 핵심명제를 대상으로 한 경우, 해결 단계에서 핵심명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RBD가 산출한 해결 단계 발화는 수가 적고 정보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RBD는 담화 산출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정보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또한 ‘해결’ 단계로의 구조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야기의 구조화 양상의 분석

이번에는 각 화자들이 산출한 핵심명제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단계별로 나타나는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정상인 집단과 RBD화자에게서의 이야기 구조화 양상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핵심명제의 단계별 구성비율

<표 - 12> 핵심명제 중에서 이야기 단계별 구성비율(%)

	배경	복잡화	해결
정상인군	35.34	60.46	4.18
대조군	31.14	65.57	3.27
RBD군 발화전체	45.45	54.54	0
RBD 자발적 발화	86.66	13.33	0
RBD 유도된 발화	5.26	94.73	0

위의 <표 - 12>는 31개의 핵심명제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이 이야기 단계별로 어떤 비율로 구성되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표 - 4>에서 산출한 전체 명제의 이야기 단계별 구성(33.2 % - 60.16 % - 6.61 %)과 비교해서 볼 때, <표 - 12>에서는 정상인의 경우 핵심명제의 단계별 구성에서 거의 유사함을 보인다. 대조군의 경우 복잡화 단계의 비율이 <표 - 4>(60.73 %) 보다 <표 - 12>에서 (65.57 %) 조금 높다. 그리고 해결 단계의 비율은 <표 - 4>에서 11.13 %, <표 - 12>에서 3.27 %로 훨씬 낮은 구성을 보인다. RBD의 경우 <표 - 12>에서는 해결 단계의 핵심 명제가 모두 없고 자발적 산출과 유도된 산출을 구별해서 볼 때 전체적으로 담화 구조화 양상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표 - 4> 보다는 핵심명제만의 구성을 살펴본 <표 - 12>에서 자발적 산출의 배경과, 유도된 산출의 복잡화 단계가 각각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해결 단계의 발화는 정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표 - 11>의 아래에서도 보았듯이 정상인군의 경우에서도 해결 단계의 핵심명제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산출한 배경과 복잡화 단계의 구성이 RBD만큼 불균형적이진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야기의 비구조화가 특징적으로 RBD에게서 관찰되는 것으로 간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이야기의 단계별 전이를 위한 연결장치의 사용

다음은 이야기 단계별 전이의 양상에 대한 분석이다. 각 화자들이 이야기의 전개상 단계를 개시하거나 전환하면서 어떤 언어적 연결 장치를 사용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배경 단계를 시작하는 데에 사용되는 언어장치들을 비교해보았다(<표 - 13> 참조).

<표 - 13> 단계별 연결 장치: 배경 시작

	정상인군	대조군	RBD군
1	옛날에	×	×
2	옛날에	×	×
3	옛날에	옛날에	×
4	옛날에	×	×
5	×	×	×
6	옛날에	×	×
7	옛날에		×
8	×	×	×
9	옛날에		
10	옛날에		
11	×		

(<표 - 13> 계속)

	정상인군	대조군	RBD군
12	×		
13	×		
14	옛날에		
15	옛날 옛적에		

위의 표를 보면, 정상인의 60 %가 ‘옛날에’로 얘기를 개시하지만 RBD는 이러한 언어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학력과 연령대가 유사한 대조군의 경우에서도 한 명에게서만 사용되었으므로 RBD군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간주하기는 힘들고 정상인군과 대조군간의 학력, 연령의 변수에 의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 14> 단계별 연결 장치: 배경 → 복잡화로

	N 그룹(N = 15)	C 그룹(N = 8)	RBD그룹(N = 8)
1	어느날	-인테	×
2	어느날	-인테	×
3	어느날	어느날	(나중예)
4	어느날	그러다가	×
5	어느날	-다가	×
6	어느날	×	(어느날)
7	×	-다가	×
8	어느날	×	그러나 인제
9	어느날		
10	어느날		
11	그러다가		
12	-다가		
13	어느날		
14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15	그러다가		

그리고 복잡화 단계를 시작할 때 정상인군의 66.66 %가 ‘어느날’로, 20 %가 ‘그러다가’를 사용해서 배경으로부터 복잡화 단계로 전환했고 대조군의 경우 75 %가 이야기 전환의 장치(‘-인데’, ‘-다가’ 등)를 사용했다(<표 - 14> 참조). 한편 RBD군에서 보면, RBD-8의 경우 정상적으로 배경으로부터 복잡화 단계로의 이행을 위해 ‘그러나 인제’를 사용했고 RBD군의 62.5 %가 전혀 연결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RBD-3과 RBD-6이 ‘나중에, 어느날’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배경으로부터 복잡화 단계로 이행하면서 이야기 전개를 위해 산출한 것이 아니라 유도된 발화에서 산출된 것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사용과 구별하기 위해서 ()로 표시했다.

<표 - 15> 단계별 연결 장치: 복잡화 → 해결로

	N 그룹(N = 15)	C 그룹(N = 8)	RBD그룹(N = 8)
1	결국은	처음에는	(결국은)
2	×	×	×
3	나중에는	그래서	그래서
4	×	그래가지고	×
5	×	나중에	×
6	×	결국	×
7	그래서	×	×
8	×	마지막에	×
9	그래서		
10	×		
11	나중에		
12	×		
13	그랬는데		
14	나중엔		
15	그래서		

해결 단계에서 보면 정상인의 53.33 %, 대조군의 75 %가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표 - 15> 참조). 반면 RBD-1는 ‘결국은’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야기의 전개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는 자발적 산출에서 배경 단계로부터 이야기 세부를 생략하고 곧장 마무리를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정상인 화자들이 복잡화 단계의 상세한 이야기 전개를 마무리하면서 해결로의 전이를 위해 ‘결국은, 그래서’를 사용한 것과, RBD-1의 ‘결국은’을 구별하기 위해서 위의 표에서 ()로 표시했다. 그리고 RBD-3는 유도된 산출에서 복잡화 단계의 발화를

산출하다가 ‘그래서’라는 표지를 사용해 정상적으로 해결 단계로 이행했다.

5. 결과 요약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RBD가 산출한 전체 발화의 수는 정상인,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지만, 이야기에서 복잡성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복잡명제의 비율은 정상인군,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RBD의 발화 산출이 정상인과 비교해서 크게 눈에 띄는 뚜렷한 장애를 보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인과 RBD가 산출한 전체 발화에 대한 것으로서 한 화자가 산출한 발화의 양적 분석만으로는 발화의 산출이 이야기 담화로서 적절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발화를 산출하더라도 그 질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규범적인 이야기의 전개에 핵심적인 정보를 갖는 발화를 얼마나 산출하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상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빈도순으로 나타나서 규범적인 이야기의 전개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31개의 명제를 핵심명제로서 추출하였다.

이야기 전체 중에서 핵심명제의 비율은 발화 전체와 자발적 산출에서 정상인군보다 RBD에게서 낮게 나타났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야기 단계별로 볼 때 RBD는 배경 단계에서 정상인보다는 낮은 비율로 핵심명제를 산출했고, 복잡화 단계에서는 핵심명제의 비율이 정상인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해결 단계의 핵심명제는 RBD 모두가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BD 대부분이 자발적 발화에서는 배경 단계로 그치거나 곧바로 해결 단계의 발화를 산출했다. 그리고 유도된 산출에서는 공통적으로 복잡화 단계의 발화를 산출했다. 복잡화 단계에서 핵심명제의 비율이 정상인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검사자가 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부와 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요?”라고 질문해 결국 복잡화 단계를 유도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복잡화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 7>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상인군, 대조군에서는 적절하게 발화되었지만 RBD군이 공통적으로 거의 산출하지 않은 핵심명제가 주로 홍부와 대조되는 놀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RBD군 모두 복잡화 단계에서 ‘홍부가 제비를 고쳐주고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 그것을 심어 홍부가 부자가 된다’까지는 서술하지만 이 이야기의 반전과 정점을 이루어 결국 해결 단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놀부 얘기를 공통적으로 생략하고 곧바로 이야기를 마쳤음을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화 단계의 핵심명제 수와 비율로 보면 정상인군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여기에서도 결국 RBD는 보다 세부적인 정보로 들어가 이야기 전체 구조에 통합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마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야기 단계를 개시하거나 다음 단계로 전이하는 언어 장치의 사용을 볼 때 정상인, 대조군에 비해서 RBD군은 구조화 장치의 사용이 대폭 축소됨을 알 수 있었다. 배경 단계를 시작하는 언어 장치는 예상과 달리 RBD만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이야기 단계별 전환 장치의 사용은 RBD에게서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사용되었더라도 정상적인 단계 이행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비교, 대조해서 이로부터 대뇌 우반구의 언어 능력, 더 나아가서 인지적 처리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RBD는 이야기 산출에서 이야기의 거시 구조로 담화를 구조화하는 능력의 손상을 보인다. RBD의 이야기에서 ‘배경-복잡화-해결’의 단계별 분석을 통해 거시 구조가 불균형적으로 산출됨을 보았다.

둘째, RBD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정보의 처리능력에 손상을 갖는다. 자발적 산출에서 볼 때 RBD군은 배경만 산출하거나 배경 이후 곧바로 해결 단계로 이행하면서 복잡화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개시키지 못했다. 유도된 산출에서 복잡화 단계를 산출하긴 했지만 대부분이 흥부와 대조되는 놀부 얘기로까지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해 이야기를 전체 구조에 통합하지 못했다. 이것을 Joannette et al.(1986)은 상세한 기술의 처리능력(specification processes)의 손상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RBD에게서 정보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기술이 결여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상술했어야 하는 상황에 RBD가 적용하지 못하는 화용론적 장애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RBD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담화를 구조화하는 언어 장치 사용의 추론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 단계별 전이를 위한 장치의 사용을 살펴보았을 때, 정상인의 경우 이 장치는 담화의 거시 구조를 구조화하는 추론 작용의 표지로 기능했다. 반면 RBD군에게서는 이러한 단계별 연결 장치의 사용이 정상인군, 대조군보다 감소되었다. 또 사용되었더라도 정상적인 단계이행의 표지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구조화하지 못함을 보상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상인군, 대조군의 ‘결국은, 그래서’는 복잡화 단계에서 해결 단계로 이행하면서 담화를 구조화하는 추론 작용의 표지로 기능한다. 그러나 RBD의 경우 ‘결국은’으로 표시한 것은 자신이 이야기의 복잡화 단계로 세부화해서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구조화하지 못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배경으로부터 곧바로 해결 단계로 이행해서 이야기를 마치려는 화자의 임시적인 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Schneiderman et al.(1992)이 이야기를 배열하는 과제를 통해서 RBD가 이야기의 주제를 전체에 통합하지 못하고 이야기 구조화 능력에서 손상을 보였음을 연구한 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RBD가 주로 추론의 능력에 장애를 갖는다고 밝히면서 ‘화용론적 장애’라거나 ‘담화상의 장애’라고 보는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가 동일한 맥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Eisenson(1984)이 언어 능력에 대해서 “우반구는 고차원적 인지 행동에, 즉 고차원적 기술적 이해와 표현에 관련된 중요한 언어 기능을 갖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뇌가 패턴과 총체성에 관련된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RBD가 담화 차원의 추론적 처리능력이 손상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역시 이 가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RBD의 손상이 우반구가 좌반구와 달리 우반구 나름대로의 특수한 언어 기능을 담당하

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우반구 자체가 특수한 언어 기능에 우세한 것이 아니라 RBD가 보이는 행동상의 장애의 일부로서 장애적 언어가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단정을 내리기 힘들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명제분석과 이야기 구조화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담화 구조화 장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즉, RBD에게서 담화 구조화의 언어 장치 사용 능력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RBD의 어떤 인지 능력의 손상을 현시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RBD의 담화상 전략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결 장치에 대한 집중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서 RBD가 담화 구조화에 필요한 응결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고차원적 언어 능력이 축소된다는 가설을 확립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RBD군이 8명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에 따른 한계를 가질 것이고, 앞으로 보다 많은 RBD 환자군의 자료를 수집해서 본 연구를 완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한다.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정상인 집단과 비실어증 좌뇌 손상자 집단, RBD 집단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eeman, M.(1993). Semantic processing in the right hemisphere may contribute to drawing inferences from discourse, *Brain and Language*, 44(1), 80-120.
- Beeman, M. J., Bowden, E. M. & Gernsbacher, M. A.(2000). Right and left hemisphere cooperation for drawing predictive and coherence inferences during normal story comprehension, *Brain and Language*, 71(2), 310-336.
- Brownell, H. H., Potter, H. H., Bihrl, A. M. & Gardner, H.(1986). Inference deficits in right brain damaged patients, *Brain and Language*, 27, 310-321.
- Eisenson, J.(1984). *Adult aphasi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Faust, M., Kravetz, S. & Babkoff, H.(1993). Hemisphericity and top-down processing of language, *Brain and Language*, 44(1), 1-18.
- Foldi, N. S.(1987). Appreciation of pragmatic interpretations of indirect commands: comparison of right and left hemisphere brain-damaged patients, *Brain and Language*, 31(1), 88-108.
- Gardner, H., Brownell, H. H., Wapner, W. & Michelow, D.(1983). Missing the point: The role of right hemisphere in the processing of complex linguistic materials. In E. Perelman (Ed.), *Cognitive processing in the right hemisphere*.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Geschwind, N.(1979). *The Brain*. New York, NY: W. H. Freeman.
- Glosser, G.(1993). Discourse production patterns in neurologically impaired and aged populations, In

- H. H. Brownell & Y. Joanette(Eds.), *Narrative discourse in neurologically impaired and normal aging adults*. San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
- Grindrod, C. H. & Baum, S. R.(2003). Sensitivity to local sentence context information in lexical ambiguity resolution: Evidence from left- and right-hemisphere-damaged individuals, *Brain and Language*, 85(3), 503-523.
- Hannequin, D., Goulet, P. & Joanette, Y.(1987). *La contribution de l'hémisphère droit à la communication verbale*. Paris: Masson.
- Hough, M. S.(1990). Narrative comprehension in adults with right and left hemisphere brain-damage: Theme organization. *Brain and Language*, 38(2), 253-277.
- Joanette, Y., Goulet, P., Ska, B. & Nespoulous, J. L.(1986). Informative content of narrative discourse in right brain damaged right-handers, *Brain and Language*, 29, 81-105.
- Kaplan, J. A., Brownell, H. H., Jacobs, J. R. & Gardner, H.(1990). The effects of right hemisphere damage on the pragmatic interpretation of conversational remarks, *Brain and Language*, 38(2), 315-333.
- Kintsch, W.(1994). The psychology of discourse processing. In Gernsbacher, M. A. (Ed.), *Handbook of psycholinguistics*. New York, NK: Academic Press.
- Le Ny, J. F.(1989). *Science cognitive et compréhension du langage*. Paris: PUF.
- Martin, I. & McDonald, S.(2003). Weak coherence, no theory of mind, or executive dysfunction? Solving the puzzle of pragmatic language disorders, *Brain and Language*, 85(3), 451-466.
- McDonald, S. & Wales, R.(1986). An investigation of the ability to process inferences in language following right hemisphere brain damage. *Brain and Language*, 29, 68-80.
- Molloy, R., Brownell, H. H. & Gardner, H.(1990). Discourse comprehension by Right-Hemisphere Stroke Patients: Deficits of Prediction and Revision. In Y. Joanette & H. H. Brownell (Eds.), *Discourse ability and brain damage: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New York, NY: Springer-Verlag.
- Myers, P. S.(1997). Right hemisphere syndrome. In L. LaPointe (Ed.),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language disorders*. New York, NY: Thieme.
- Ross, E. D.(1981). The aprosodias: Functional-anatomic organization of the affective components of language in the right hemisphere, *Archives of Neurology*, 38, 561-569.
- Schneiderman, E. I., Murasugi, K. G. & Saddy, J. D.(1992). Story arrangement ability in right brain damaged patients, *Brain and Language*, 43(1), 107-120.
- Springer, S. P. & Deutsch, G.(1998). *Left Brain and Right Brain: Perspectives from cognitive neuroscience*(5th ed.). New York, NY: W. H. Freeman.
- Ulatowska, H. K., Allard, L. & Chapman, S. B.(1990). Narrative and procedural discourse in aphasia,

- In Y. Joannette & H. H. Brownell (Eds.), *Discourse ability and brain damage: theoretical & empirical perspectives*. New York, NY: Springer-Verlag.
- Van Dijk, T. A.(1977). *Text and context: Explorations in the semantics & pragmatics of discourse*. London & New York, NY: Longman.
- Van Dijk T. A. & Kintsch, W.(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New York, NK: Academic Press.
- Weylman, S. T., Brownell, H. H., Roman, M. & Gardner, H.(1989). Appreciation of indirect requests by left and right-brain-damaged patients: The effects of verbal context and conventionality of wording. *Brain and Language*, 36(4), 580-591.

<부록>

* RBD-1 화자의 '홍부와 놀부' 이야기 의미내용 분석 *

<자발적 산출>

발화	명제의 의미내용	설명
홍부와 놀부가 있었는데	P1 (있다, 홍부와 놀부)	<배경 단계> P1 (살다, 홍부와 놀부)이 핵심명제인데 '살다' 대신에 '있다'도 등장인물을 이야기에 도입하는 기능을 하므로 유사한 내용으로 간주함.
놀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P2 (욕심 많은, 놀부)	핵심명제인 P3의 '착한'과 유사한 내용으로 간주함
홍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P3 (욕심 없는, 홍부)	핵심명제인 P4의 '나쁜'과 유사한 내용으로 간주함
	P4 (-고, P2, P3)	
	P5 (-데, P1, P2)	
	P6 (-그래가지고, P1, P4)	
홍부는 없어도	P7 (가난한, 홍부)	
사람을 도울 줄 알았는데	P8 (돕다, 홍부, 다른 사람들)	
	P9 (알다, 홍부, P8)	
	P10 (-도, P7, P9)	
놀부는 있으면서 사람을 안 도왔어	P11 (부자인, 놀부)	
	P12 (돕지 않다, 놀부, 다른 사람들)	
	P13 (-도, P11, P12)	
	P14 (-데, P10, P13)	
결국은 그게 그런 다음에 놀부가 인제 안돼가지고	P15 (안되다, 놀부)	<해결 단계>
	P16 (결국은, P14, P15)	
	P17 (그런 다음에, P14, P15)	
	P18 (성공하다, 홍부)	
놀부가 안돼가지고 홍부가 잘된다	P19 (-해가지고, P15, P18)	

<유도된 산출>

발화	명제의 의미내용	설명
	P20 (돕다, 흥부, 제비)	<복잡화 단계> 핵심명제인 P19의 '치료하다, 고치다'와 유사함.
제비를 도와줘가지고, 제비가 씨앗을 물어다줘가지고	P21 (물어오다, 제비, 박씨)	
	P22 (-해가지고, P20, P21)	
그 씨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저 벌었지	P23 (나오다, 무엇인가)	핵심명제인 P29(나오다, 금은보화)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함
	P24 (-에서, P23, 박씨)	
	P25 (-해가지고, P21, P23)	
	P26 (벌다, 흥부, 돈)	
	P27 (-해가지고, P24, P26)	
그 동생들은... 식구를 안 도와줘가지고 죄를 받은거지	P28 (돕지 않다, 놀부, 흥부)	
	P29 (받다, 놀부, 벌)	
	P30 (-해가지고, P28, P29)	
형이니까..... 안도와줬지, 안도와줬지, 고치긴 고쳤는데.....	P31 (치료하다, 놀부, 제비다리)	
	P32 (형, 놀부)	
	P33 (돕지 않다, 제비, 놀부)	
	P34 (-니까, P33, P34)	
	P35 (-는데, P32, P35)	

ABSTRACT

Analyses of Semantic Contents and Organization of Narratives in Right Brain Damaged Patients

Kyoung Sun Baik

(Dep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iscourse characteristics of right-side brain damaged patients(RBD) during the task of producing a narrative by analyzing the semantic content and the mode of organization. Eight RBDs, eight control subjects, and fifteen normal adult subjects were included to a production task of the narrative, 'Two brothers: Heung-bu and Nol-bu'. The subjects did not need external cues for this task because this narrative is well known by all native Korean speakers. In using the analysis technique by Van Dijk(1977), Van Dijk & Kintsch(1983), Le Ny(1989) and Joannette et al.(1986) suggested that the total number of the semantic propositions in RBDs was reduced, but their complexity was similar to that of the normal participants.

For a qualitative analysis, we distinguished two types of production: Spontaneous production and production guided by the experimenter. We selected 31 core propositions that contained the essential informative contents of the narrative 'Two Brothers'. Accepting that the organization of the narrative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setting', 'complication', and 'resolution', we found that the RBDs showed a lesser amount of core propositions for the 'setting' than did the other normal subjects, but they did not produce any core propositions in the 'resolution'.

During the spontaneous production, the RBDs produced the 'setting' of the narrative, and then they passed directly to the 'resolution' component in order to summarize the story. In the second production guided by the experimenter, they produced the core propositions of 'complication'. It is remarkable that the RBDs did not spontaneously produce the 'complication' of the narrative. From this result, it is inferred that the RBDs showed reduced informativity in the production of the narrative, and that they could not specify the details of the story in order to integrate them into the organization of the narrative. Our confirmation of the deficit in processing specific details in RBDs is in agreement with the conclusion of Joannette et al.(1986). The narrative of RBDs showed a deficit for integrating the details into a coherent structure, that is to say, the deficit was in the ability to organize the discourse. In line with the suggestion of Eisenson(1984), it was confirmed that the RBDs' cognitive capacity is deficient at a higher level of language.

The results of our study support that the right hemisphere has its own specific cognitive function of language. For the next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how RBD patients manipulate linguistic markers in narrative discourse. Although this case study is limited only eight RBD patients, the results from this test will lend support to the next study where comparisons of not only other RBDs and normal group will be made, but also a group of left-brain-damaged patients and RBDs will be compared.

Key Words : production of discourse, right-brain-damaged, macrostructure, discourse analysis, core proposition, propositional analysis, organization of discourse

▶ 게재 신청일: 2004년 5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04년 11월 15일

▶ 백경선: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e-mail: ksespoir@kornet.net